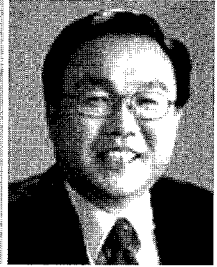


민통련 시절, 열정 · 그리움 · 아쉬움



전 민통련 조직국장 이명식

1956년생, 민청련 인권부장, 민통련 조직국장, 전민련 조직국장,
통일시대국민회의 정책위원장, 현. 참여시대 고양포럼 이사장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은 멀고, 20년 전에
우리가 가졌던 문제의식이 다 해결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통련과 같은 방식의 운동을 이제 다시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민통련 당시에 지녔던 문제의식이
쉽게 버려지거나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년 전에 몸담았던 민통련을 되돌아보면 가슴 속에 지금도 그 시절의 열정과 목이 멎 듯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진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민통련은 내가 29살 즈음에 시작하여 35살이 되도록 나름대로 청춘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몸 받쳤던 조직이었다. 그 속에서 열정을 받쳤던 기억들, 엄혹한 상황에서 만나 배우고 일하면서 진한 정을 나누었던 잊을 수 없는 선배, 동지들에 대한 그리움, 87년 대선에서의 분열과 패배의 아픔과 조직의 해소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아쉬움 등이 머리 속을 맴돈다.

이제 20대 청춘은 가고 민통련 창립 당시 막내였던 나도 어느 듯 50대가 되었다. 다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시절이지만 나는 아직도 민통련을 기억에서 지우고 싶지 않다.

우연한 계기 - 민청련에서 민통련으로

나는 1980년 제임포고령 위반 혐의로 감옥을 갔다가 그 해 9월에 바로 군에 끌려가서 83년 5월에 제대한 후, 이듬해 84년부터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에서 상근 활동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민청련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던 1984년 가을 무렵, 당시 민청련 의장으로 계시던 김근태 선배께서 재야의 선배들이 단체를 만드시는데 실무자로 가서 도우라는 명(?)을 내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주통일국민회의란 재야 원로 선배들로 구성된 단체를 만드는데 심부름도 하고 실무적인 일도 할 젊은 사람이 필요하여 젊은 활동가들이 많은 민청련에 사람을 요청했는데 민청련 활동가 중에 내가 지명된 것이었다. 아마 무능한 탓이리라.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선배들의 명에 따라 그해 84년 11월부터 민주통일국민회의에서 실무자로 일하게 되었다.

민주통일국민회의에는 문익환 목사님, 계훈제 선생님, 백기완 선생님 그리고 이창복 선생님, 장기표 선배, 임채정 선배, 김종철 선배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셨고, 나는 이 단체의 막내로 선배들 심부름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민청련에서 일할 때, 한달 활동비가 7만원이었고 1주일마다 교통비로 1만원을 받았는데, 교통비가 나오는 날이면 김찬, 김성원 등 또래 동료들과 근처의 식당에서 그럴듯한 점심식사를 하곤 했다. 그런데 국민회의에서 일하던 첫 달, 당시에는 활동비를 받는 상근자가 나하고 유옥순 선배(전 콘트롤레이터 노조 부위원장 출신) 두 사람 뿐이어서 그런지, 25만원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달에 7만원 받다가 갑자기 4배 가까운 25만원을 받으니 기분이 좋아 민청련에 있던 동료들에게 한턱내었다.

열정의 시절 - 수배된 동지들과 함께

85년 3월 국민회의는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통합하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으로 재창립된다.

민통련으로 재창립하는 과정에서 민청련 측과 입장 차이가 있어 3월 창립 당시에는 민청련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되니 민청련에서 파견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나는 좀 황당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지만 민중민주운동협의회에서 일하던 이부영 선배를 비롯해서 박계

동 선배, 정선순씨 등이 합류하니 사무실은 더욱 활기를 찾게 되었다.

민통련은 연합단체로 출범과 동시에 수많은 투쟁현장에 참여하고 또 조직사업, 홍보사업 등을 펼쳤다. 단체의 규모에 비해 실무인력이 많지 않았던 초기라 나는 자연히 여러 가지 실무(예를 들면 인쇄소에 유인물을 맡기고 찾는 일부터, 행사가 있으면 각종 플래카드 같은 것을 챙기고 여러 현장에 쫓아다니는 일 따위)를 도맡아야 했다.

그리고 민통련에는 많은 지역단체들이 참여했는데, 그 무렵 지역단체에서 실무를 맡던 분들이 대부분이 나와 연배와 학생운동 경험이 비슷해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본부에서 상근 활동가로 여러 실무를 하는 이외에 지역운동협의회(약칭 지운협)의 간사를 맡아 본부와 지역단체의 교량역을 맡게 되었다. 이런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나는 86년 3월 23일 뜻밖의 상황으로 구속되게 되었다.

그 무렵은 민통련이 개헌싸움을 위해 민주헌법쟁취위원회라는 특위를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던 시점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역별로 열리던 당시 신민당의 개헌현판식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으로 출장을 가려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 박영진 열사가 신흥정밀이란 회사에서 노동운동 과정에서 분신,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져 추모투쟁을 준비하게 되었다. 민통련에서도 당연히 이 추모집회에 참여해야 하는데 당시 사회국장으로서 사안을 맡아야 할 조춘구 선배(당시 한국노총을 그만 두시고 민통련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가 연대모임이 처음이니 만만한 나에게 함께 가달라고 했다. 결국 추모 가두시위를 주도했다가 현장에서 잡혀 5개월 정도 징역을 살았다.

그런데 그 덕(?)에 86년 5·3인천사태를 피해가게 되었다. 8월에 석방되고 보니 민통련은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였다. 문익환 의장님 이하 대부분 간부들이 5·3인천사태로 구속되거나 수배되어 조직이 존폐의 위기에 놓인 것이었다. 석방 이후 지방에서 지운협 모임이 열려 참석하니 대다수가 수배된 상태인 지역동지들이 지운협 간사가 지역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로 감옥에 갔다며 비판이 거셌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지역과 연결고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으니 이후 지운협은 꾸준히 모임을 유지하면서 87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86년 8월 석방 이후부터 87년 6월항쟁까지는 참으로 긴박하고 힘든 나날이었다. 많은 동지들이 구속, 수배된 상태에서 본부 상근자로 일하면서 민통련 기관지 '민중의 소리'가 단 한번도 거르지 않고 발행되도록 한 것은 지금도 보람된 일로 기억된다. 수배상태이던 김종철 대변인, 고 김도연 선배 등이 원고를 모아 편집, 레이아웃까지 해 주면 나는 이를 몸에 지

니고 인쇄소로 향했다.

삼엄한 감시망 속에서도 한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으시고 인쇄를 도맡아 주셨던 세진인쇄의 고 강은기 사장님께 이 지면을 통해 다시 감사드립니다. 인쇄가 끝나면 최철 선배가 운영하시던 종로 5가의 공해문제연구소 사무실로 옮겼다. 당시 공해문제연구소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6층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혼자 신문을 짚어지고 계단을 올라가서 지역에 보낼 물량을 나눠서 포장하고 다시 짚어지고 내려와서 주위의 천일고속을 통해 지역에 보냈다. 한 여름에는 신문 1만부를 짚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나면 땀이 비오듯 흐르고 하늘이 노랬다. 그래도 그 신문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도언론의 기만과 거짓이 아닌 참소식을 기다리는 분들 손에 전달된다는 보람으로 힘든 줄 몰랐다.

전두환 정권의 탄압이 극한으로 치달던 86년 11월 말, 군사독재는 민통련 사무실 폐쇄령을 내렸다. 사무실을 사수하기 위한 농성도 용접기와 해머를 동원한 경찰력을 견딜 수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대변인이었던 김정환 선배 등 많은 선배 동지들이 다시 구속되고 민통련은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지역에서 수배된 동지들이 민통련을 지켜내지 못하면 지역운동도 결국 다 같이 망한다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수배 상태에서나마 민통련 운동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전청련의 고 신영일, 고 정순철, 전북민협의 이광철, 인사연의 이우재, 홍성북, 경북 민통련의 김균식 등의 동지들이 서울에서 모여 기관지 '민중의 소리' 기획, 편집 등 여러 업무를 맡아 도왔던 기억이 새롭다.

대부분이 5·3인천사태로 현상수배된 상태라 서울 시내를 활보할 수 없었고, 모임을 갖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찰의 감시가 허술한 이태원, 방배동 등 유흥가 한 모퉁이에서 밤을 지새우며 토론하고 일했던 시절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리움으로 남아 있다. 힘든 시기에 함께 했기에 지금도 지우협 멤버들은 유난히 결속력이 강하고 서로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특히 지금은 고인이 된 신영일 동지는 서로 간에 조금의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끝까지 토론을 통해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함께 하던 동지들의 불철저한 부분을 용납하지 않고 다그치던 시어머니였다.

그러던 중 87년 1월 박종철 고문살해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상황은 돌변하게 되었다. 민통련은 이 사건이야말로 극한을 치달던 군부독재의 탄압에 중지부를 찍고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보았던 것이다. 민통련은 지우협을 통해 87년 2월 7일, 3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조직했다.

86년 하반기에 정점으로 치달았던 폭압을 뚫고 민주화운동 세력이 전열을 가다듬으며 불

씨를 살려내던 상황에서 기름을 끼얹어 준 것이 전두환의 4·13호헌선언였다. 4·13호헌선언은 민주화운동 세력 뿐 아니라 법조, 교육, 여성, 문화, 종교계, 정치권 등 시민사회의 여러 부문이 모두 다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라는 하나의 틀로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민통련 지역조직들은 이 과정에서 지역 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주도하는 한편, 전국 동시다발투쟁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87년 6월항쟁은 이렇게 준비되고 조직되어 거센 불꽃으로 타올랐다.

명동성당 농성의 기억

6월 10일 전국 곳곳에서 타올랐던 투쟁의 불꽃이 늦은 밤이 되어 잦아들 무렵, 명동성당에서는 7~800명의 학생, 시민이 밤샘 농성에 돌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민통련 사무차장이었던 박우섭 선배(현 인천 남구청장)와 함께 결정한 사항이 민통련 동지들은 시내에서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명동성당에 집결한다는 것이었다.

6월 11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이 진행 중이란 소식을 접하고 나는 김부겸 동지(현 국회의원)에게 민통련 가맹단체 동지들이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민통련 본부에서 들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함께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우리는 명동성당에 들어가 나는 민통련 대표, 김부겸은 국민운동본부 대표를 자임하며 농성투쟁의 방향을 선전전으로 바꿀 것을 설득했다. 격양된 분위기에서 우리의 설득을 잘 받아들이지 않던 농성지도부가 결국 6월 11일 밤을 넘기면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6월 12일부터는 선전전 위주의 평화적 집회로 양상을 바꾸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의 크나큰 호응을 얻어 명동성당은 농성을 지지하는 주변 셀러리맨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 나는 명동성당 농성현장과 민통련, 국민운동본부의 지도부를 연결하고 투쟁을 조율하기 위해 명동성당 비밀통로를 통해 하루에도 몇 번씩 성당 안팎을 드나들었다.

명동성당 농성이 국민적 호응을 얻고 파장이 커지자 정권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공작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가톨릭 신부들이 시민, 학생들의 농성의 정당성을 옹호하자 권력도 마음대로 진압에 나서지는 못했다. 당시 농성지도부 내에는 명동성당 농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민운동본부가 다시 전국적으로 투쟁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과 명동성당 농성을 계속하여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정권의 본질을 폭로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었다. 나는 전자의 입장에 서서 농성하던 시민, 학생

을 설득하는데 전력했다. 그러나 농성장 내부의 분위기는 강경파들의 주장이 더 우세한 편이었다.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을 수습하여 농성을 마무리짓게 하는 과정에서 함세웅 신부님의 감동적인 설득이 크게 작용했던 것을 기억한다.

민통련 문선대 - 전국순회 통일강연회

노태우의 6·29 선언 이후 민통련은 문익환 의장께서 감옥에서 나오시고 폐쇄되었던 사무실을 다시 내면서 향후 운동방향을 6월항쟁의 민주화 열기를 통일운동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정했다.

나는 이러한 방침을 받아 지역운동 단체들과 협의한 결과 민통련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문익환 의장과 백기완 부의장을 모시고 강연회를 열어 대중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단순히 강연회만으로는 대중동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맹단체인 민중문화운동연합(민문연) 동지들과 상의한 결과 문화선전대를 구성하여 강연의 앞풀이로 마당극을 하기로 하고 공연단을 결성, 연습에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한 민통련 전국순회공연, 강연회는 87년 7월 말부터 8월까지 전국 20여 곳에서 개최되었다. 비좁은 봉고차 한 대에 10여명이 나눠 타고 전국을 다니는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연에 최선을 다하던 민문연 동지들, 정희섭, 김영만, 장창익, 이관학 등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나는 이 공연의 책임자로 일정을 짜고 행사장에서는 각종 자료를 팔고(공연 비용 조달을 위해) 끝나면 지역의 동지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평가회를 갖는 등 전국을 돌아다녔다.

우리가 전국을 순회하던 시점과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일어났던 시기가 겹쳐 경남 마산의 공연과 거제의 공연에서는 지역 노동자들이 수천명씩 대거 참여했던 기억은 지금도 새롭다.

87년 대선과 분열

20년이 흘렀지만 87년 대선과정을 떠올리면 지금도 이쁨과 아쉬움이 남는다. 조직이 분열되어 엄혹한 탄압시기에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된 것이 지금도 아픔으로 남아 우리가 좀더 잘했으면 국민들 속에 자리잡아가던 민통련이 그리 쉽게 조직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을 맞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지금에 와서 어떤 입장이 더 옳았느냐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기억해 두고 싶은 것은 조직인으로서의 자세에 관한 문제이며 나는 이와 관련하여 고 김병곤 선배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김병곤 선배는 당시 개인적으로는 비판적지지 편에 서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된다. 민통련의 공식적인 입장은 양 김씨 중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김대중 후보의 지지운동을 펼치되 일정한 시점이 경과해도 우세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퇴시킨다는 것이었다.

김병곤 선배는 자신의 생각과 조직의 결정이 차이가 있었지만 끝까지 결정된 사항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대선 당일 이미 패배가 가정사실화된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상황이 구로구청 부정투표합 사건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로구청으로 향했다. 결국 김병곤 선배는 구로구청 투쟁의 현장 상황실장을 맡아 감옥으로 가야 했고 옥중에서 병을 얻어 돌아가시고 말았다. 나는 지금도 민통련 과정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준 선배 중 한분으로 김병곤 선배를 떠올리며 웃음을 머미게 된다.

글을 마치면서

84년부터 89년 2월 민통련이 해소할 때까지 나는 민통련을 통해 많은 선배, 동지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했던 기억을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참으로 많은 선배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가르침을 얻었다. 그 중에서도 문익환 의장님은 삶의 좌표로 영원한 큰 스승이 되어 지금도 가슴 속에 살아계신다. 89년 내가 늦장가를 들 때 기뻐하시며 주례를 서주시고 평양에 다녀오신 것 때문에 징역을 살고 나오신 후 방북보고대회 차 부산에 내려오셔서, 신혼살림을 하고 있던 나의 집을 찾아 주신 것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나는 89년 이후 전민련에서 일하다가 사업도 하고 정당활동도 했지만 지금도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것은 민통련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87년 이후 민주주의는 진전되었고, 통일문제도 이제 성큼 다가온 것 같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은 멀고 20년 전에 우리가 가졌던 문제의식이 다 해결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통련과 같은 방식의 운동을 이제 다시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민통련 당시에 지녔던 문제의식이 쉽게 버려지거나 잊혀져서는 안될 것이다. 엄혹한 상황에서 뜨거운 동지애를 가지고 만났던 그 시절, 지난날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깨끗이 잊고 열정과 그리움만으로 동지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글을 마친다.